

後進國에 있어서의 內資의 調達과 그 産業別 配分 (其2)

朴 喜 範

<目 次>

- I. 後進國 産業構造의 特質
- II. 先進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政策基準
- III. 後進經濟의 政策基準으로서의 國民生產力
- IV. 産業別投資의 戰略
- V. 結論

經濟開發을 위한 資本動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經濟制度 및 社會制度의 改善을 先行條件으로 하며, 近代化된 制度를 基盤으로 하고서만, 政策의 立論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諸制度의 確立을 前提로 하더라도, 보다 能率적으로, 그리고 보다 計畫적으로 필요한 資本을 동원하고, 또한 그것에 수반되는 經濟的 摩擦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면, 결국 일정한 목적을 위해 政策的으로 조작할 수 있는 經濟機構(economic organization)의 設定이 필요하다는 것을 暗示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競爭의 解決의 長點을 지나치도록 살피는 緩慢한 混合經濟體制를 假想하였으며, 이는 마치 J. Strachey가 中共과 印度를 “토끼와 거북이”의 競走로 비교한 거북이 중에서도 가장 걸음이 느린 거북이를 假想한 셈이었다.⁽¹⁾

이제 우리는 調達된 資本의 産業別 配分에 관한 投資 全般에 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문제를 후진국에 局限시키는 限 近代化는 곧 工業化過程을 뜻하며, 植民地統治下의 隸屬關係에서 合理的인 經濟成長을 보지 못했던 隸屬的 産業構造를 是正하여 自主的 産業構造를 형성하는 데 있다. 隸屬性을 止揚한 自主的 産業構造의 확립 없이는 長期的 觀點에서 보아 持續的인 成長을 期待할 수 있는 합리적 國際分業의 基盤을 마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후진국의 近代化는 이렇게 볼 때 隸屬的 産業構造의 清算過程을 뜻하며, 보다 合理的인 새로운 次元에서의 國際分業關係의 확립과정을 뜻한다. 마치 資本調達 문제가 制度의 改善이란 社會變革 없이는 政策의 立論이 불가능한 것 처럼, 資本의 産業別 配分 즉 投資

(1) J. Strachey, *The Great Awakening*, Published as Encounter Pamphlet, 1961. (李忠孝譯, 帝國主義와 民主主義, pp. 57~76).

全般의 문제는 隸屬으로부터의 經濟的獨立을 大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그 政策的立論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買辦의 乃至 隸屬의 產業構造를 深化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隸屬의 依存體制를 형성하는 靜態的國際分業에 滿足하는 한 持續的이고도 合理的인 經濟成長을 期待할 수 없으며, 經濟的獨立은 불가능하다.⁽²⁾

I. 後進國 產業構造의 特質

中國 혹은 “라틴 아메리카” 처럼 政治的獨立을 維持해 온 후진국이든, 과거 植民帝國의 統治를 받았던 戰後의 新生獨立國家이든 간에, 오늘날의 後進國은 過去 특히 19世紀에 있어서의 先進資本主義經濟의 비약적인 外延的成長(extensive growth)을 經濟的으로 뒷받침한 나라들이다. 확실히 先進資本主義는 이러한 植民地 혹은 半植民地를 祭物로 하고서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을 經濟的基盤으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工業의 外延的 乃至 不均衡的成長을 成就할 수 있었던 것이다.⁽³⁾ 이리하여 J. Strachey가

(2) 靜態的國際分業을 排黷하고 動態的國際分業의 필요를 강력히 主張하는 見解로서는 小島清, 外國貿易論, 東京, 1950을 參照하기 바라며, 후진국의 初期의 開發計劃에서 經濟的獨立을 위해 먼저 重工業의 확립을 提言한 P. C. Mahalanobis 教授의 「印度第2次 5個年 計劃案」의 基本目的을 參照하기 바란다. (Recommendation for the Formulation of the Second Five Year Plan, the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1954) The Second Five Year Plan is therefore being formulated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in view:

- (1) to attain a rapi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y increasing the scope and importance of the public sector and in this way to advance to a socialistic pattern of society;
 - (2) to develop basic heavy industries for the manufacture of producer good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economic independence;
 - (3)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household or hand industries; and to provide an adequate market for the products;
 - (4) to develop factory production of consumer goods in a way not competitive with hand industries;
 - (5) to increase productivity in agriculture; and to speed up agrarian reforms with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land to peasant cultivators so as to stimulate th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of purchasing power in rural areas;
 - (6) to provide better housing, more health service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education especially for the poorer sections of the population;
 - (7) to liquidate unemployment as quickly as possible and within a period not exceeding ten years;
 - (8) and as the result of such measures to increase national income by about 25 per cent over the plan period and achiev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 (3) A.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New York, 1941. pp. 38~39. Hansen 教授는 19世紀에 있어서의 西歐 및 美國의 飛躍的發展을 海外市場을 기반으로 한 外延的成長으로 特徵지웠고, 海外市場의 完全開發이 오늘날의 先進經濟의 長期停滯(secular stagnation)의 큰 原因이라고 지적한다.

P. Streeten, “Unbalanced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Vol. II, June 1959. Streeten 教授는 西歐 특히 英國에 있어서의 工業의 不均衡的成長은 海外市場(植民地)을 土臺로 하고서만 가능했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與件이 그렇지 못한 경우 成長目標로서의 不均衡成長論은 是正되지 않을 수 없음을 暗示한다.

指摘했듯이 第2次大戰前의 狀況判斷으로서는 만일 이러한 植民帝國이 그들의 植民地를 喪失하게 되면 一朝에 이들 植民帝國이 崩壞하고 말것이라는 것이 일반적觀察이었다(4). 戰後 植民地를 喪失한 과거의 植民帝國이 새로운 修正資本主義體制의 內在的機能과 그들 相互間의 새로운 國際分業 乃至 經濟領域의 形成으로 보다 飛躍的인 발전을 一定한 期間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는 事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世紀에 있어 植民帝國의 일방적인 工業의 비약적발전 내지 不均衡의 成長이 후진지역의 經濟的榨取 없이도 가능했으리라는 論據는 될 수 없다. 확실히 戰前까지의 先進資本主義는 植民地 혹은 半植民地의 榨取 위에서 자랐으며, 그것을 經濟的基盤으로 하고서만, 그들의 物質文明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戰後의 先進資本主義는 前述한 바와 같이 修正資本主義의 새로운 內在的 힘과, 그들 相互間의 새로운 分業, 그리고 그것을 基盤으로 하는 經濟的統合, 및 그러한 分業을 가능케 한 1930年代의 代用原料時代와 戰後의 非鐵金屬 乃至 「플라스틱」 原料의 利用이라는 科學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次元의 繁榮을 約束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植民地란 그것으로부터 얻는 經濟的利得보다 澎湃하는 내셔널리즘을 鎮壓하기에 필요한 財政的負擔이 더 크며, 따라서 代用品을 考察하지 못한 石油資源을 가지는 中東 및 「베네주엘라」 등을 除外한다면, 植民地란 無用之長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狀況은 世界貿易構造의 變遷過程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1960~62年間的 推移만 보더라도 先進國 對 先進國의 이른바 東西貿易이 世界貿易의 比重에서 불배 70%에서 75%로 上昇한 反面, 後進國 對 先進國의 이른바 南北貿易은 반대로 25%에서 20%로 감소하고 있다.(5) 그러나 戰前까지만 하더라도 世界貿易은 오히려 보다 많은 부분이 先進國 對 後進國, 이를테면 宗主國 對 植民地 간의 貿易으로 형성되었으며, 外國貿易이라고 하면 南北貿易을 指稱하는 것이 正常이었다. 따라서 先進資本主義諸國의 오늘날의 經濟的優位가 지난날의 후진지역의 經濟的榨取의 所産임은 勿論이려니와, 그들의 오늘날의 對後進國 經濟政策 역시 過去의 經濟的支配意慾에서 脫皮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世界貿易이 東西貿易 爲主로 형성되어 있다는 事實은, 先·後進國 間의 所得=購買力의 格差에서 오는 絶對的差異를 뜻할 뿐 그들의 對後進國 貿易政策은 역시 종래의 貿易構造, 말하자면 消費財 對 原料 및 特産物의 交換을 持續시키려는데 그 本質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國際經濟的 狀況에서 형성된 후진국의 産業構造는, 그것이 植民地였든 半植民地

(4) J. Strachey, 前掲書, p. 14.

(5) 當該年度의 UN 統計年鑑에 의하여 算定.

였든 간에, 그렇게 형성된 世界經濟構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후진국 產業構造의 性格 및 후진국 商業資本의 買辦化傾向은 이와 같은 世界 經濟構造를 反映한 것에 불과하며, 그들 자체의 國民의 生産力을 提高할 진정한 民族資本의 형성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도 당연한 歸結이었다. 우선 하나의 재미있는 實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韓國의 USOM 副處長 Hallinan 博士는 후진국 經濟開發을 위한 形態學的接近法을 學論하는 마당에서, 韓國 및 「사이프러스」 등 후진국의 產業聯關分析의 結果를 보면 工業과 農業의 聯關關係 내지 相互依存關係가 缺如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農民들의 工業製品需要를 爲主로 하는 工業發展, 따라서 都市化를 防止하고 農村의 村落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開發을 주장하고 있다.⁽⁶⁾ 村落工業中心의 經濟開發에 對한 價値判斷을 論外로 하더라도 產業聯關分析의 結果가 그러하다는 것은 바로 韓國經濟構造의 隸屬的 내지 買辦的 性格을 端的으로 表現한데 불과하다. 왜냐하면 韓國의 消費財工業, 특히 綿紡織, 製粉 그밖의 食品加工業의 原料는 美利農物로 充當되어 왔지, 國內產 原料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特殊한 買辦的 構造를 土臺로 하는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의 結果가 農·工業의 聯關關係를 나타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제 후진국의 產業構造를 分析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敍上한 世界 經濟的 聯關下에서는 후진국은 經濟的 觀點에서 볼 때 隸屬的 내지 買辦的 產業構造를 冒免할 수 없고, 社會學的으로는 都市와 農村이 이른바 二重社會(dualistic society) 혹은 複合社會(plural society)의 형태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점이다. 첫째로 隸屬的 產業構造의 形成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후진국의 近代化는 先進資本에 의한 自然採取產業의 開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通例였다. 各種 鑛山은 開發되어 先進國의 生産財產業 특히 重工業의 原料供給源이 되고, 農業은 한편 原住民의 食糧生産을 爲主로 하는 自給農의 형태로 存續하는 一面이 있기도 하지만, 先進國의 消費財產業 乃至 輕工業에의 原料供給을 目的으로 하는 近代化된 農場制農業(estate agriculture)으로 發展한다.⁽⁷⁾ 自給農의 경우 農經營을 위한 諸制度는 조금도 近代化되거나 改善되지 않으며 남은 封建的土地所有制度가 存續한다. 그 理由는 植民帝國이 傳統的인 支配勢力인 地主 및 高利貸業者를 植民地統治에 利用할 必要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支配勢力의 經濟的 基盤을 存續시킬 政治的 理由도 있었지만, 經濟的 理由로서는 封建的 收奪制度(小作制와 高利貸)를 存續시킴으로써 植民者들

(6) 1964年 11月 27日 延世大學校에서의 講演.

(7) 戰前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自給農 對 農場制農業의 產出高比率은 40對 60이였으며, 지금도 「브라질」은 食糧을 輸入할 程度로 農場制農業 爲主의 農業成長을 보여주고 있다.

에 의한 原住民擄取가 더욱 便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宗主國의 消費財工業에의 原料供給을 목적으로 하는 農場制農業 分野에서는 「코스트」를 節減해야 했고 보다 能率的이어야 했기 때문에 農業經營의 近代化는 물론 農產物의 加工施設까지도 近代化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傳統의 制度와 營農方法에 의존하는 自給農을 제외하면 近代化된 鑛業 및 農場制 農業은 후진국 그 자체의 幼稚한 傳統의 國內手工業과는 거의 아무런 相互補完關係를 맺지 못한다. 설사 鑛業이 都市의 國內工業과 聯關性을 맺는다 하더라도 在來式手工業에 대한 原料供給에 불과하며, 自給農이 都市產業과 關係를 갖는다 해도 精米, 製粉 및 製菓 등 傳統적인 消費財工業과 關聯될 뿐이다. 이리하여 鑛業과 農業은 本質的으로 후진국 그 자체의 都市工業과 相互補完的 내지 相互促進의 關係를 맺지 못한다. 다른 한편 先進工業國은 후진국으로부터의 鑛物과 農產物, 그리고 그들 자체의 國內原料에 의하여 生産財產業과 消費財產業이 밀접한 聯關關係를 가지면서 發展하며, 그들의 生産力發展이 가져다 주는 消費財의 過剩生産物은 후진지역의 消費財市場에 의하여 吸收된다. 후진국의 輸出品인 鑛物 및 農產物 對 輸入品인 消費財의 交易條件은 恒常 後進國에 不利해지게 마련인데다, (8) 先進國의 機械製品인 輸入消費財는 후진국의 傳統의 手工業製品을 市場에서 驅逐하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후진국의 都市에서는 近代의 工業이 發展될 基盤을 喪失하며, 다만 買辦的 商·用役業 및 그것에 寄生하는 高利貸가 盛行할 뿐이다. (戰後 新生國家에서 先進原料의 단순한 加工에 불과한 近代의 消費財工業이 建設되는 傾向이 있지만, 위에서 본 買辦的 隸屬關係에 本質的인 差異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로 후진국의 社會構造는, 이러한 產業構造를 反映하여 都市와 農村이 완전히 異質적인 二重的 혹은 複合의 性格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農村은 植民帝國의 統治便宜上 혹은 經濟的收奪方便으로 封建的 내지 前資本主義的經濟制度가 存續하는 關係로, 비록 일부 貨幣經濟化하는 傾向은 있지만, 生産性的 飛躍的向上은 期待되질 못하고 小作制度와 高利貸의 壓制아래 單純再生産을 되풀이하며 封建的社會相을 根本的으로 뒤집어 었을 아무런 契機를 가지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후진국의 都市는 植民地化와 더불어 開化되지만, 결코 西歐처럼 新興 產業都市로 成長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植民地統治를 위한 行政都市 내지 買辦商人都市로 化하고, 官僚와 商人 그리고 植民勢力과

(8) Singer 教授의 推算에 의하면, 1948年以前의 30年間에 있어 후진국의 交易條件이 40% 程度 不利하게 變動하였으며, 이것을 후진국 資本形成을 阻害하는 하나의 重要한 要因으로 보고 있다. (H.W. Singer, *Economic Progres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Economic Policy*, ed., Grampp & Weiler, pp. 286~7.)

그리고 그 이후의 UN 統計를 보면 1948~58年間에 있어 후진국의 交易條件은 또다시 11~12%나 惡化하고 있다.

結託한 不在地主와 高利貸業者 등으로 형성되는 有關都市로 化한다. 先進國의 都市가 生産을 위한 工業都市라면 후진국의 그것은 消費를 위한 消費都市인 것이다. 植民帝國은 僻地의 鑛物과 農產物을 本國으로 輸送하고 消費財의 販賣網을 위해 鑛山과 農場 및 鐵道 道路 港灣 通信施設 등에 投資를 하지만, 그것은 후진국 그 자체의 産業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都市는 消費面에서 近代化의 惠澤을 입지만 農村은 좀처럼 近代化될 展望을 갖지 못한다. 이리하여 兩者 間に 文化的隔差가 累積하며, 時間과 더불어 異質의인 社會로 變貌한다. 都市는 經濟的聯關關係에서 볼때 先進經濟를 위하여 存在하며, 후진경제 그 자체를 蝕하는 寄生的都市로 轉落한다. 新生獨立國家의 都市가 몇개의 現代의 消費財加工業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都市의 性格이 本質的으로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만 종래의 先進國의 完製消費財의 販賣를 위한 買辦商人都市가 半製品의 加工 그리고 그 製品의 販賣를 主로 하는 후진적 獨占財閥 乃至 買辦商人의 都市로 性格이 바뀌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⁹⁾

이와 같이 후진국의 經濟 및 社會制度는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各種 要素가 共存하는 複合社會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諸制度는 先進侵略資本에 의하여 巧妙하게 그들의 私益을 위해 利用·助長되어 왔다. 따라서 후진국은 그 자체의 國家利益과는 距離가 먼 經濟的祖國 없는 市民社會이며, 그것은 先進獨占資本과 經濟的으로 結付되어 왔다. 그러므로 先進國에 있어서의 市民革命은 國內의 守舊勢力 對 新興勢力 간의 鬭爭이며, 兩者間的 勢力交替過程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우, 이들 新興勢力은 守舊勢力과 鬭爭해야 함은 물론 이와 結付되어 있는 外勢의 排除가 더욱 중요한 歷史的課題로 登場한다. 1848年 3月 革命까지의 獨逸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의 英國産業資本과 結託한 海岸都市의 買辦의商人同盟 및 內地의 地主階級이 얼마나 頑強하게 獨逸의 新興 産業資本勢力의 擡頭를 沮止하였으며, 또한 이들과 結付된 御用學者 및 言論이 얼마나 掣肘하게 近代化를 가로막았던가를 想起하면 충분하다. 그뿐인가? 오늘의 新生 獨立國家에서는 外勢를 驅逐하고, 또한 前世紀의 經濟·社會制度를 基盤으로 하여 보다 組織的으로 外勢와 結付되어 있는 守舊勢力을 交替하기란 19世紀 후진국의 經驗과는 그 類를 달리한다. 더

(9) 二重社會 혹은 複合社會에 관한 論議에 관해서는, J. H. Boeke, *The Interest of Voiceless Far East*, 1948 및 J. S. Furnivall,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1939를 參照하라.

다만 Pigou가 大量失業의 原因을 賃金의 硬直性(勞動組合의 團體契約權)에서 求하고 그 終局的인 責任이 바로 勞動者를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듯이, 二重社會의 根本的 要因을 原住民의 先天的인 意慾의 缺如와 懶怠等, 한마디로 말해서 原住民이 못나서 開化가 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句節을 제외하면 많은 示唆을 얻을 것이다.

구나 19世紀에도 自由主義라는 先進「이데올로기」가 이에 對한 保護主義에 依하여 後進國으로부터 驅逐되기 까지 많은 時間과 苦難이 隨伴되었지만, 오늘날의 所謂 民主主義 혹은 社會主義라는 先進「이데올로기」가 後進國의 國家利益을 大變하는 새로운 後進「이데올로기」로 再解釋되고 再修正되기란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 先進「이데올로기」는 다 같이 後進國 그 자체를 위한 메시아(Messiah)의 思想으로 君臨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II. 先進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政策基準

1950年代에 들어와서 動態經濟學이 문제되기 이전의 先進經濟의 政策基準은 한마디로 要約해서 「雇傭 生産 및 購買力의 極大」였다.⁽¹⁰⁾ 이러한 政策目標은 先進經濟學에서 古來로 傳統을 이어온 國民厚生의 極大化란 政策原理를 再確認하는데 불과하다. 獨占資本主義의 內在의 矛盾이 露呈하여 慢性의 大量失業과 막대한 資本施設의 遊休라는 資源의 浪費가 顯在化하자 近代經濟學은 그 解決策을 두 갈래로 摸索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人的·物的資源의 合理的利用 乃至 配分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立場이며, 그것은 곧 人的資源의 失業 및 物的資源의 遊休의 根本原因으로 생각되었던 完全競爭의 障礙條件을 排除함으로써 完全競爭狀態로 復歸케 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자는 態度였다. 이런 立場은 또다시 두개의 潮流를 갖는데, Hicks에 依하여 「經濟政策의 經濟學」이란 定義가 붙은 新厚生經濟學派의 思潮과 Lange-Lerner에 依해 代辯된 自由制社會主義論者의 立場이 그것이다. 前者는 K. E. Boulding 教授에 依해 「不毛의 經濟學」이란 烙印이 찍힐만큼 단순히 19世紀의 完全競爭에 對한 鄉愁일 뿐, 이미 完全히 變質된 獨占資本主義 아래서는 現實的 意義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後者는 보다 積極的으로 完全競爭을 가로막는 獨占의 要素를 制度上에서 除去하려는, 이를테면 獨占資本主義 그 자체를 否定함으로써 完全競爭을 制度上으로 保障하려는 立場이었다.⁽¹¹⁾ 그 둘은 物的資源의 合理的配分은 뒤로 돌리고, 우선 人的資源의 完全雇傭에 政策的照準을 맞추는 立場이다. Keynes를 비롯해서 初期의 修正資本主義論者들의 立場이 그것이고, 間接的으로 物的資源의 完全利用——決코 最適配分을 뜻하지 않는다——을 避하는 것이다. 이러한 態度는 W. H. Beveridge에 依하여 더욱 制度的改善을 가져왔고, 美國에서는 「1946年의 雇傭法」으로 發展하기도 했지만, 物的資源의 最適配分은 상당히 犧牲되며, 다만 間接的誘導的 方法으로 物質的資本

(10) The Employment Act of 1946, Section 2.

(11) A. P. Lerner, *The Economics of Control*, New York, 1949 및 O. Lange & F. M. Taylor,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inneapolis, 1938.

의 遊休를 排除하자는 立場밖에 되지 않는다⁽¹²⁾

오히려 經濟政策面에 限해서 보면 Fascism의 經濟政策은 修正資本主義에 앞선 面이 있다. 그 理論的 뒷받침이 全體主義哲學에 起源하기는 하지만, 20世紀 1·4半期까지의 外延의 成長에서 內包的 成長으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現代獨占資本主義의 主要政策手段이 公共土木事業과 可能的 限에 있어서의 autarky의 多樣生産에 呼訴하지 않을 수 없었던 歷史的必然性에 想到할 때 Fascism이나 修正資本主義는 같은 族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확실히 修正資本主義는 Fascism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極端的인 經濟的」民族主義⁽¹³⁾이었고, 獨占資本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點에서도 Fascism과 相通한다. 다만 다르다고 하면 政治的「이데올로기」뿐이고, 政策의 密度와 幅이 다를 뿐이다. 이 點에서 Fascism이나 修正資本主義는 또 다른 새로운 「이데올로기」的 次元에서 解決策을 구하고자 한 自由制 社會主義와 다를 뿐이다. 歷史的 試行錯誤過程에서 어느 것이 捷徑이었던가는 後世의 史家들의 批評에 맡겨 질 性質의 것이다.

1950年代 이후 後期 Keynes派에 와서도 理論的 動態化를 除外하면 그 基本的 立場에서 큰 變化가 없다. 그들도 다만 「雇傭 生産 및 購買力의 極大」를 持續적으로 維持할 수 있는 條件이 문제였지 결코 生産力(productive power) 그자체를 提高하게끔 資源을 配分하려는 近代化初期의 政策的인 필요를 再認識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立場은 지극히 當然하며, Marx以來로 資本主義의 內在的矛盾點으로 문제된 生産力增加率과 購買力(有效需要)增加率 간의 乖離를 政策的으로 調整하는데 動態經濟學의 全課題가 介在하는 것이다.

Harrod는 이 문제를 現實成長率 G , 保證成長率 G_w , 및 自然成長率 G_n 의 乖離關係로 파악한다. 그는 G_w 의 G_n 으로부터의 乖離를 慢性的失業의 문제로 파악하여 資本主義 그 자체의 體質改善을 要하는 制度改善의 문제로 생각하였고, G 의 G_w 로부터의 乖離를 景氣循環의 문제로 파악한다. 前者는 理論的分析和 관련되는 문제이며 後者는 政策과 관련되

(12) Keynes의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 있어서의 有名한 「런쓰레기」의 再掘을 위한 公共事業論, 및 W.H. Beveridge,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New York, 1945, pp. 131~142에 있어서의 完全雇傭을 위한 第2條件으로서의 “controlled location of industry”가 實質的으로 資源의 配分問題에 관한 內容이 겠지만, Beveridge의 主要手段이 “Town Plan”의 性格밖에 갖지 않는 點을 생각하면 이들의 理論的立場을 알 수 있다.

(13) H. C. Simons, *Economic Policy for a Free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p. 277. 그는 William H. Beveridge의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를 誦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eeking a national economic-financial program which would accommodate his expensive plan, Sir William found it whole at the Oxford Institute, in a hyper-Keynesian scheme of tightly regimented economy and extreme economic nationalism.”

는 문제로 생각했다.⁽¹⁴⁾ 우리들의 分析이 필요한 範圍 안에서 그의 立場을 要約해보자. 長期의인 傾向으로서는 社會의 生産力을 代辯하는 Gw 와 現實成長率 및 自然成長率 간의 不均衡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G < Gw > Gn$ 이란 不等式을 $G = Gw = Gn$ 의 等式으로 轉換케 하는데 先進經濟의 政策의 目標가 있는 셈이다. 不況 ($G < Gw$)과 好況 ($G > Gw$)의 周期的反覆을 調整하는데도 단순한 勞賃 및 金利政策만으로는 不可能하지만 $Gw > Gn$ 란 事前的傾向을 根本적으로 是正하지 않는 限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은 持續될 수가 없다. 이리하여 그는 事前的의미에서 必要資本係數 Cr 을 現實資本係數 C 보다 높여 $Gw = Gn$ 化하자면 窮極적으로 「無利子社會」를 實現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資本主義에 대한 集産主義의 批判은 『實際로 全體主義社會에 대한 憧憬에서가 아니다. 確實히 集産主義運動이 그 힘을 集結하고 있는 理由는 集産主義 그것만이 「資本의 稀少價値에 便乘하는 資本家의 累積의 壓力」으로부터 資本主義者들을 除去하는 唯一의 手段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들이 地平線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集産主義와 對決할 수 있다고 한다면 集産主義에 代置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無利子社會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한다.⁽¹⁵⁾

Domar는 더욱 簡明하고, 더욱 特徵的으로 이 문제를 說明하여 준다. 그는 P 를 社會의 生産能力, Y 를 完全雇傭國民所得水準이라 할 때, 一定時期에 있어서의 生産能力과 國民所得의 均衡狀態는,

$$P_0 = Y_0 \dots \dots \dots (1)$$

이므로 이를 계속 維持하자면,

$$\frac{dP}{dt} = \frac{dY}{dt} \dots \dots \dots (2)$$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分析에 의하면 社會의 生産力의 增加率은

$$\frac{dP}{dt} = I\sigma \dots \dots \dots (3)$$

이고 (이때 σ 는 潛在的社會生産力), 國民所得의 增加率은

(14) R. 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London, 1948, p. 91.

(15) 前掲書 p. 147 參照. 그리고 Harrod 의 基本方程式에 의하면,

$$Gc = s \dots \dots \dots (1)$$

$$GwCr = s \dots \dots \dots (2)$$

$$GnCr = \text{or } \neq s \dots \dots (3)$$

이므로 만일 長期의傾向이 $G < Gw > Gn$ 일 때 政策的으로 $G = Gw = Gn$ 化하자면, 必要資本係數 Cr 을 높여야 하며 事前的인 의미에서 더욱 資本集約的投資를 要求한다. 아마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더욱 明白한 說明과 具體的인 敷衍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필요를 논하지 않는다.

$$\frac{dY}{dt} = \frac{dI}{dt} \frac{1}{\alpha} \dots\dots\dots(4)$$

이다. 이 때 α 는 限界貯蓄性向이며 $\frac{1}{\alpha}$ 은 投資乘數이다. (3)과 (4)를 (2)式에 代入하면,

$$I\sigma = \frac{dI}{dt} \frac{1}{\alpha} \dots\dots\dots(5)$$

가 되는데 이것이 完全雇傭所得水準을 維持하는 條件式이 된다. 따라서 (5)式을 풀면,

$$I = I_0 e^{\alpha \sigma t} \dots\dots\dots(6)$$

이 되며, 當該年度의 投資量, I 는 常數인 基準年度의 投資量 I_0 에 一定한 複利率($e^{\alpha \sigma t}$)을 乘한 投資量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Marx가 提起한 社會의 生産力과 購買力(Domar는 完全雇傭國民所得 Y 로 파악)간의 乖離⁽¹⁷⁾의 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첫째로 Harrod는 $Gw > Gn$ 을 $Gw = Gn$ 化하는 問題로 파악하여 이를 實現하자면 더욱 資本集約的인 投資, 즉 $Cr > C$ 化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無利子社會를 實現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Domar는 社會生産力의 增加率과 購買力(完全雇傭所得)의 增加率의 乖離 즉 $\frac{dP}{dt} > \frac{dY}{dt}$ 의 長期的傾向을 調整하여 $\frac{dP}{dt} = \frac{dY}{dt}$ 化하자면 一定한 複利率로 投資를 계속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Harrod와 Domar의 分析은 결론적으로 同一하며, 다만 Harrod는 그 窮極的手段을 無利子社會의 實現으로 보았고, Marx는 私有財産制를 基盤으로 하는 資本主義社會는 이 矛盾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果然 無利子社會의 實現이 集産主義化(私有財産의 否定)하지 않고서도 可能한지의 與否는 극히 疑問視되며 이것 亦是 後世의 史家들의 論評에 맡겨질 性質의 問題이다.⁽¹⁸⁾

- (16) E.D. Domar,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New York, 1957, pp. 70~76. Domar 자신도 是認하고 있듯이 보다 正確한 說明은 同書 pp. 83~108에 亶하여 展開된 「經濟擴張과 雇傭」이란 論文일는지도 모른다.
- (17) 周知하는 바와 같이 K. Marx는 資本增殖過程으로서의 資本主義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 $\frac{C}{V}$ -를 높이며, 따라서 投資는 大量生産이란 生産效果和 購買力의 相對的減少傾向(大衆貧困化傾向)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商品價値構成($C + V + S$)의 定義에서 당연히 導出되는 결론이다. 이러한 內在的矛盾이 終局的으로는 資本主義 그 자체의 運命을 결정지운다고 주장한다.
- (18) K.K. Kurihara, "Professor Hansen on America's Economic Revolu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LXVIII, September 1958. Kurihara 教授는 Hansen 教授의 混合經濟體制를 중심으로 이 問題를 廣汎하게 다루고 있으며, Harrod의 無利子社會에 관한 見解에 대하여 대체로 批判的인 立場에 선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留意해야 할 것은 美國經濟가 Hansen 教授의 소위 混合經濟의 내지 厚生國家의 接近이 許容하는 程度를 超越하여 社會主義로 발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a) 適宜한 Keynes의 政策이 安定的成長을 지속하는 課題에 不適하다는 것이 立證되는 경우, 그리고 (b) 다른 有力한 私企業經濟의 나라가 經濟的 혹은 政治的 理由로 해서 Keynes가 諸國民의 民主主義를 保存하려던 것 以上으로 過激한 計劃을 採擇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고.

Ⅲ. 後進經濟의 政策基準으로서의 國民生產力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先進經濟의 政策原理는 市場에서의 競爭의 解決에 의한 資源의 合理的配分을 理想으로 하며, 그것이 곧 國民厚生의 極大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配分은 주어진 資源으로 市場價格으로 評價된 極大의 國民生產을 가져다 주며 나아가 國民의 物質的消費를 極大케 하기 때문이다.⁽¹⁹⁾ 그들이 말하는 資源의 合理的配分이란, 消費者主權社會의 特徵을 反映하는 이데면 市場에서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는 競爭의 解決을 뜻하며, 어떤 政策的價値判斷에 의한 人爲的인 資源의 產業別 配分을 概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立場은 어디까지나 完全競爭狀態로 되돌아 갈 수 없는 獨占資本主義라는 經濟與件을 無視하고 다만 衍學的인 論理의 操作을 일삼았던 新厚生經濟學派의 態度였지만, 完全雇傭을 무엇보다도 重視하는 Keynes 派의 靜態的理論이나 後期 Keynes 派의 動態的理論에 있어서도 資源의 合理的配分을 市場에 있어서의 解決 아니면 價格의 媒介機能을 利用하는 誘導的計劃에 의하여 實現하자는 데는 아무런 變動이 없다. 이처럼 資源의 配分問題를 市場을 통한 競爭의 解決 내지 다만 誘導的方法에 의한 調整에 呼訴하는 限 消費者들의 現在의 厚生을 極大化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市場을 통한 競爭의 解決은 實質的으로 社會的 生産에 관한 모든 問題의 決定投票를 의미하는 現在의 消費者들의 個個의 消費行爲를 反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消費者主權社會의 당연한 屬性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先進經濟學者들은 그러한 解決만이 合理的이고 客觀的이며, 따라서 科學的이라고 強調한다. 그러므로 人爲的 政策基準에 의한 資源의 配分은 非合理的이며 主觀的價値判斷이 介入하는 非科學的 解決이라고 말한다.⁽²⁰⁾

(19) 厚生經濟學이 결코 生産의 極大만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主觀的極大條件과 客觀的極大條件을 동시에 充足하는 極大狀態의 分析이 그들의 目的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論爭點은 所得分配狀態가 國民厚生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였다. 이 論爭은 Pigou의 命題에서 출발하여 新厚生經濟學派로 계승되었지만,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 Pigou와 Lerner는 각각 다른 原理이긴 하지만 所得의 公平分配가 國民厚生을 增大한다고 보았지만, Samuelson은 市場的 解決의 結果가 最適的分配狀態라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興味있는 敘述에 관해서는 A.P. Lerner, *The Economics of Control*, New York, 1949, pp. 23~40. 및 P.A. Samuel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pp. 219~230를 參照하라.

(20) 經濟學에 있어서의 主觀的價値判斷의 排除는 19世紀末의 方法論爭 이후 論爭點으로 되어 왔다.

W. Sombart는 G. Schmoller의 立場이 옳다고 肯定하면서도 論理的으로는 C. Menger의 勝利로 斷定했지만, Marx, Spann 및 Gottl의 態度를 높이 評價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의 著 *Die Drei Nationalökonomien*, (1930)은 아직도 一讀할 만한 價値가 있다. 확실히 그는 市場

市場에서의 競爭의解決, 이를테면 自由放任主義가 合理的일 수 있자면, 現代化된 產業資本主義의經濟基盤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國民經濟의 發展段階가 이 段階에 미치지 못했거나 그것을 넘어 더욱 高度化하여 寡占狀態에 있다고 하면, 벌써 市場에서의 競爭의 해결이 合理的일 수는 없는 일이다. 現代產業資本主義에 이르지 못한 후진경제에 관한 限 첫째로 前資本主義의諸制度의 全面的改革을 통한 制度의 近代化 이를테면 社會變革(social change)이 政策的課題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先進獨占資本의 狩獵場이 되어 온 隸屬의 내지 買辦的產業構造의 自主的·獨立的產業構造에로의 構造的變革(structural change)이 政策的課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變革이 없이 市場의解決=自由放任에 全經濟問題를 맡기게 되면 이 論文의 前篇 基本定理에서 해명했듯이 調達된 資源의 많은 非生產的浪費($Acr < Asr$)를 수반하며, 近代化에 필요한 現實的資本形成率을 實現하거나 그것을 持續시킬 수는 없다.⁽²¹⁾ 그러므로 制度의 改善 혹은 社會變革은 事實上 資源의 調達문제와 結付되며 이미 우리는 이 문제를 前篇에서 論述한 셈이다.

그런데 調達된 資本의 產業別配분에 관한 分析이 主題가 되는 여기에서는 產業構造의 變革과 關聯된다. 만일 先進資本의 經濟的壓力이 存續하고 또한 그것과 결부된 國內의 前世紀的經濟勢力이 經濟的主導權을 쥐고 있는 前資本主義의인 隸屬的產業構造를 갖는 經濟에서 市場의解決=自由放任에 經濟的運命을 맡기거나, 그러한 經濟勢力和 결부된 政治勢力이 買辦資本을 庇護하는 經濟體制에 그 나라의 經濟的運命을 맡긴다면, 그러한 社會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비록 社會變革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져 現實的 資本形成率을 社會的可能貯蓄率까지 提高하였다 하더라도, 前資本主義의인 隸屬的產業構造를 더욱 深化하는 資本의 配分밖에 결과하지 않을 것이며 經濟的近代化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에서의 投資問題, 즉 資本의 產業別 配分은 무엇보다도 產

的解決만이 科學的이거나 合理的이라고 생각될 수 없다는 점을 洞察할 수 있는 炯眼의 所有者임에 틀림없다. Samuelson도 政策基準으로서의 厚生函數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主觀的 價値判斷이 容認되지만, 一旦 厚生函數를 결정한 이후에는 科學的態度가 堅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前掲書 p. 220) 다만 그가 뜻하는 科學的態度가 完全競爭的解決만을 의미한다면, Sombart가 이미 解명한 문제이다.

(21) 前篇에 있어서의 內資調達에 관한 基本定理,

$$Acr < (Asr - Nsr) < Spr$$

$$\text{및 } Spr < Gns$$

에 관한 基本概念은 P.A. Baran의 經濟剩餘에 관한 概念(現實的經濟剩餘 As , 潛在的經濟剩餘 Ts , 計劃的經濟剩餘 Ps)

$$As < Ts = Ps$$

과 符合하는 點이 많다. 만일 事前에 Baran 教授의 著述을 一讀할 機會가 있었더라면, 그 關係를 더욱 명백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Baran 教授의 見解에 관해서는, 그의 著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1957,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을 參照하기 바란다.

業構造의 隸屬性내지 買辦性を 止揚·克服하는데 目標을 設定해야 한다. 이러한 前提條件 아래서만 그밖의 投資問題가 立論될 수 있다. 후진국의 初期의 經濟計畫이 先進經濟學者들이나 政治家들의 많은 酷評을 받으면서도 우선 經濟的獨立——隸屬性의 止揚——을 위해 基礎的인 重工業의 建設을 目標로 삼고 있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²²⁾ F. List가 保護主義와 國民生産力의 培養을 強調한 事實은 물론 F.D. Graham 및 M. Manoiesco의 恒久的工業保護論도 바로 이러한 理由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³⁾

經濟制度의 基盤이, 隸屬性을 띤 商業資本 혹은 獨占財閥을 위한 原始的蓄積의 狩獵場으로 되어 있고 商業資本과 마찬가지로의 性格을 띤 高利貸資本 및 半封建的農民收奪의 非生産的 土地制度가 溫存하며, 物質的生産資源이 先進獨占資本의 壟斷에 맡겨져 있는 후진경제에서, 그러한 前世紀的資本의 無慈悲한 蓄積을 助長하는 市場에서의 競爭的解決을 容認한다면, 비록 貨幣國民所得의 成長이 있다해도 隸屬的産業構造의 深化를 결과할 뿐 眞正한 國民生産力의 成長을 의미하지는 못하며, 단순한 貧益貧 富益富의 所得再分配의 效果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이러한 體制가 存續하는 限 市場에서의 競爭的解決, 즉 自由放任이나 그러한 前世紀的經濟勢力을 庇護하는 經濟統制機構는 결국 制度의 改善을 의미하는 社會變革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制度的基盤이 그러한 限 自由放任은 이들 前資本主義的經濟勢力의 經濟的基盤인 産業構造의 隸屬性을 더욱 深化하고 持續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制度의 改善 내지 近代化라기 보다 前世紀的 낡은 制度의 保存政策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후진경제는 한편에 있어 단순한 前資本主義的原始的蓄積에 불과하여 資源의 生産的動員을 阻害하는 制度的要因을 排除하고 다른 한편에서 隸屬的産業構造를 止揚·克服하는 이른바 社會變革과 構造的變革을 동시에 充足시켜주는 體制의 確立이 近代化의 前提條件이 된다. 이러한 후진국의 欲求를 充足시켜주는 體制로서는 결국 후진국 特有的 獨特한 混合經濟, 아니면 이 亦是 社會主義的 買辦을 排除할 수 있는 후진국 特有的 社會主義的 體制일 수 밖에 없다. 후진국적 混合經濟가 Hansen의 이른바 美雇傭法的 混合經濟일 수는 없을 뿐더러, 國際共產主義의 이데올

(22) 註(2) 印度第二次5個年計畫 目標의 (2)項을 參照하기 바라며, 餘他的 學者의 理論이나 先進資本主義國家의 對後進國政策은 그만두고, 후진국 經濟開發에 가장 幅넓은 理解와 知識을 가지는 學者중의 한 사람인 P.N. Rosenstein-Rodan도 가뜰이나 世界的으로 過剩施設投資를 하고 있는 製鐵等 重工業을 후진국에서 제 각기 建設한다는 것은 世界資源의 浪費라고 酷評할 程度이다. P.N. Rosenstein-Rodan,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The Economic Journal*, June-September, 1943. 參照

(23) Graham 및 Manoiesco의 恒久的工業保護論에 관한 간단한 說明에 관해서는, 小島 清, 外國貿易論, 1950年, 東京春秋社版, pp. 198~216을 參照하기 바란다. 參考삼아 原典을 紹介한다. F.D. Graham, *Protective Tariffs*, New York 1934. 및 M. Manoiesco, *Die nationalen Produktivkräfte und Außenhandel*, Berlin, 1937.

로기의 十字軍의 역할을 도맡는 買辦的社會主義일 수도 없다. Hansen의 混合經濟는 後期 獨占資本主義段階에 알맞는 體制이며, 買辦的社會主義 역시 先進社會主義의 政治的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라면, J.A. Schumpeter의 “社會主義의 文化的 不確定性”에 관한 概念은 非但 社會主義에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混合經濟에도 適用될 수 있다.⁽²⁴⁾

隸屬的產業構造의 自主的 獨立的 產業構造에로의 構造的變革은 先進經濟의 獨占資本과 聯關關係를 맺어온 後進국의 生産資源을 後進국 자체의 工業과 聯關關係를 맺게 함으로써 自主的 產業聯關關係를 확립하는 過程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後進국 產業의 隸屬的紐帶의 斷切을 의미하며 經濟的獨立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生産財產業의 重點的 開發과 消費財產業과의 終局的 均衡을 꾀하는 國民生産力의 培養을 政策的目標로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先進經濟의 政策原理가 現在의 國民厚生과 物質的 豊富를 指向하는데 反해서 國民의 將來의 繁榮내지 將來의 厚生의 擴大를 꾀하며 現在에 있어서는 國民의 耐乏을 強要한다. 19世紀 後進국의 工業化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은 西歐的文化傳統을 갖은 나라들일뿐 아니라, 英國의 先進產業資本의 浸透密度가 오늘의 後進국에 비해 훨씬 弱했고, 특히 이들 後進국의 當時의 1人當 所得이 現在의 貨幣價値로 換算하여 約 200 弗水準을 維持하고 있었기 때문에 19世紀的 工業保護論만으로도 工業化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⁵⁾ 日本의 경우는 한편에서 徹底한 西歐制度의 導入을 통한 模倣資本主義 體制를 확립했고, 韓國이란 植民地에서 그들의 工業化에 필요한 物的資源과 人的資源을 거의 收奪的方法으로 供給받을 수 있었던 點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²⁶⁾ 그러나 植民地로부터 獨立한 戰後의 後進경제에서는 오랜 隸屬關係에서 產業構造나 經濟活動樣式이 그

(24) J.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pp. 170~171.

So we cannot proceed on this line. Instead we have to face what I shall refer to as the Cultural Indeterminateness of Socialism. In fact, according to our definition as well as to most others, a society may be fully and truly socialist and yet be led by an absolute ruler or be organized in the most democratic of all possible ways; it may be aristocratic or proletarian; it may be a theocracy and hierarchic or atheist or indifferent as to religion; it may be much more strictly disciplined than men are in a modern army or completely lacking in discipline; it may be ascetic or eudemonist in spirit; energetic or slack; thinking only of the future or only of the day; warlike and nationalist or peaceful and internationalist; equalitarian or the opposite; it may have the ethics of lords or the ethics of slaves; its art may be subjective or objective; its forms of life individualistic or standardized; and—what for some of us would by itself suffice to command our allegiance or to arouse our contempt—it may breed from its supernormal or from its subnormal stock and produce supermen or submen accordingly.

(25) P. Streeten, “Unbalanced Growth”, *Oxford Economic Papers*, Vol. II, June 1959.

(26) 慎鏞度, 韓國資本主義 成立過程의 研究(碩士學位論文), 1963 參照.

자신 買辦性을 意識할 수 없을 程度로 習性化되어 있을 뿐 아니라, 産業全般에 걸쳐 隸屬的 紐帶가 組織的으로 浸透·持續되며, 그렇지 않아도 前世紀的經濟制度때문에 資源이 非生産的으로 浪費되는데 1人當 所得水準은 100 弗以下이고 보니,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도 調達 不可能할뿐더러 調達된 資本조차도 隸屬的構造를 굳게 할 뿐 自主的生產力의 培養과 逆行하는 方向으로 投資되는 實情이다. 따라서 오늘의 後進경제에서는 現實的資本形成率을 社會的可能貯蓄率까지 提高할 수 있는 強力하고도 組織的인 資本動員機構과 自主的 내지 經濟的獨立에 必要한 生産財産業의 建設, 특히 現代工業의 基礎이 될 수 있는 基礎工業(basic industries)의 確立이 工業化 初期의 至上課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基礎工業의 確立은 隸屬的産業構造를 自主的産業構造로 轉換케 함으로써 構造的變革을 爭取하게 하는 轉換點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聯關産業에 있어서의 誘發投資를 가능케 함으로써 工業化過程을 短縮하고 促進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自主的産業構造의 形成이야말로 眞正한 經濟發展을 의미하며, 民族의 將來의 繁榮을 期約하는 國民生産力의 培養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한 1人當 貨幣所得의 成長을 뜻하는 經濟成長은 隸屬的·植民地的 産業構造에서도 短期的으로는 期待할 수 있지만, 一定한 限界를 넘어 서면 隸屬經濟本來의 姿態인 靜態를 甦할 수 없게 된다. 反對로 國民生産力의 提高를 꾀한 構造的變革過程에서는 오히려 一定한 期間 1人當 消費水準은 低下할망정 原始的 業績을 排除하는 가담에 所得分配는 均等化하는 傾向이 있을 것이므로 國民大衆의 消費生活에 重大한 威脅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將來에 있어서의 物質的繁榮을 約束하는 經濟發展이 이룩될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提起되는 문제는 自主的産業構造로서의 生産財産業과 消費財産業, 工業과 農業 및 大工業과 中小工業 간의 均衡, 그리고 그것을 위한 基礎工業 中心의 生産財工業 建設이 어느 程度로 推進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後進국에서나 그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물론 1930年代의 帝國主義戰爭 準備期間에 있어서의 Fascism 諸國의 autarky 論은 하나의 特異한 時代的樣相에 불과하다. 그러나 Ricardo 的인 靜態的比較生産費原理에 입각하여 後進국이 언제까지나 自然抽出産業과 monoculture 的 農業을 爲主로 하며 간단한 道具나 機具의 生産을 目的으로 하는 中小工業의 狀態를 甘受한다면, 隸屬的내지 買辦的 國際經濟關係의 持續을 위한 十字軍의 역할에는 貢獻할지언정, 近代化 그자체를 拋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Ricardo 的 比較生産費는 甚하게 말하면 後進국에게 買辦的 내지 隸屬的産業構造를 強要하는 당시의 先進國인 英國의 産業資本을 代辯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形式上 國際貿易의 原理를 雄辯으로 說明하고 各國의 共通的

繁榮을 約束하는 理論인 것 같으면서도, 其實 世界貿易의 擴大均衡을 否定하고 既存의 經濟發展隔差에서 由來하는 靜態的國際分業을 永續化하려는 先進資本의 貪慾을 代辯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靜態的比較生産費에 忠實하려는 限 후진국의 工業化는 立論의 餘地가 없게 된다. 오히려 世界貿易의 擴大均衡을 苛하고 近代 物質文明의 全般의 發達에 貢獻하자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可能한 工業國家로서의 最少限의 基礎工業을 가져야 하며, 그 經濟의 人的·物的要素가 許容하는 一定한 段階의 工業化를 豫想한 動態的國際分業을 前提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로소 List의 保護論의 正當性을 발견할 수 있고 Manoilescu 등의 恒久的 工業保護論의 妥當性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小島 清 教授는 工業의 能率報酬率이 餘他の 産業의 그것보다 높으며, 따라서 資源을 重點的으로 工業에 投資하고 恒久的으로 工業을 보호하는 것이 成長率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Manoilescu의 理論을 背景으로 比較成長率의 原理 및 動態的國際分業의 原理를 주장한다.⁽²⁷⁾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autarky나 工業國家를 指向할 수는 없는 일이다. 自然資源의 分布 및 人口密度 여하에 따라 海外依存을 輕視할 수도 있고, monoculture가 有利할 수도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²⁸⁾ 그뿐 아니라 資源의 偏在나 文化的傳統뿐만 아니라 現代技術의 生産能力이 보다 廣大한 市場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觀點에서 보면, 可能한 限 넓은 經濟的聯合없이는 自主的國民經濟의 형성이 불가능하거나 有利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²⁹⁾

IV. 産業別 投資의 戰略

19世紀 후진국과 달라서 오랜 植民統治아래 歪曲될대로 歪曲된 隸屬的産業構造를 前提로 하고서는 持續的인 經濟發展이 沮害되는 까닭에 自主的經濟基礎의 擴充, 이를테면 近代的工業國家로서 필요한 下部構造(infra-structure) 形성을 위해 社會間接資本과 基礎工業의 建設이 후진적經濟開發의 前提條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또한 價格의 媒

(27) 小島 清著 前掲書 pp. 203~207.

(28) 美國과 소聯이 各各 海外依存을 GNP의 5~6% 및 2.5%에 머무르게 할 정도로 거의 autarky에 가까운 例도 있지만, 「브라질」처럼 工産物은 물론 食糧까지도 輸入하면서 熱帶作物의 單一栽培을 維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經濟가 이러한 分業으로 참다운 近代化가 가능할 것인가는 別問題이다.

(29) 8千萬의 人的資源의 統合, 및 多樣的인 自然資源의 綜合的開發 및 같은 文化的傳統의 繼承을 위한 Arab Union 形成運動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반대로 Arab Union의 形성이 西歐帝國主義國家들의 石油資源 保存에 얼마나 큰 威脅이며 따라서 西方強國에 의해 Arab Union의 形成이 얼마나 沮止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R.K. Karanjia, *Arab Dawn*, London, Lawrence & Wishart, Ltd., 1959을 參照하라.

介機能에 의존하게 되면 隸屬의 내지 買辦的 產業構造를 持續 내지 深化할뿐 資源을 이러한 基礎工業으로 誘導할 수 없는 까닭에 政府의 直接的인 統制를 수반하는 混合經濟 내지 社會主義的開發方式이 요청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후진국의 경제개발이 隸屬性의 止揚을 위한 構造的 變革이라는 內在的인 要因 때문에 自主的·獨立的 產業構造의 형성을 요청하지만 技術의 발달이 선진국工業으로 하여금 自然資源보다도 合成原料를 더 많이 요구하게 했다는 點, 그리고 先進工業 상호간에서 보다 細分된 特化를 요구하는 點 등이 先進經濟로 하여금 그들 相互間의 交易만으로도 經濟的 繁榮이 約束되기 때문에 후진국은 그만큼 先·後進國 간의 經濟的依存關係에서 遊離되며, 따라서 적어도 基本的 工產品需要를 스스로 充足하지 않을 수 없다는 外生的 要因으로 말미암아 自主的 產業構造를 더욱 요청하게 된다.⁽³⁰⁾

이러한 政策的 指針에 관한 諸問題가 그나라의 支配的인 政治勢力에 의해 인정을 받거나 그것을 代辯하는 새로운 政治勢力이 擡頭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構造的 變革過程에서 일어나는 過渡期的 諸問題와 資源의 部門別 配分에 있어서의 優先順位의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過渡期的 諸問題를 考察해 보기로 하자. 綜合科學으로서의 現代技術의 相互依存性은 經濟開發 初期에 있어서의 大規模推進(Big-Push)을 요청한다. 動力 輸送 通信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그리고 製鐵 工作機械 機關車 自動車 및 造船 등의 重工業과 肥料 精油 合成纖維 其他 重化學工業 등 基礎工業의 確立을 위해서는 많은 外資 및 內資가 필요하며 現代技術의 導入 및 訓練을 요청한다. 輸出增加로 借款의 導入 및 그 償還의 展望이 선다 하더라도 그만큼 消費財導入은 抑制되어야 하는 반면, 生産財產業 爲主의 投資過程에 있어서의 內資支出은 반대로 消費財需要를 激增케 한다. 물론 후진국에서는 必要的 消費財가 충분히 國內에서 調達될 리 없다. 그러므로 商業資本 高利貸資本 및 地主制度를 根幹으로 하는 前資本主義的 經濟制度가 存續하는 限 物價의 暴騰과 이를 틈탄 이들 非生産的 資本의 一方的肥大를 가져 올뿐 開發過程은 中止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物價騰貴는 이들 非生産的 資本과 早熟한 후진국의 一部 獨占資本에 有利할 뿐 長期的인 工業投資에 致命的인 打擊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水準의 社會間接資本과 基礎工業은 同時에 大規模으로 推進되지 않고서는 그들의 技術的 聯關關係로 말미암아 稼動이 불가능한 관계로 甚大한 資源의 浪費를 가져온다. 따라서 첫째로 一定한 社會變革, 이를테면 農業革命 外國貿易 및 一定한 國內商業 및 用役業에 있어서의 state marketing

(30) 東西貿易의 擴大와 南北貿易의 萎縮에 관해서는 註(4) 參照.

내지 統制 그리고 高利貸 및 非生産的인 不動產投資에 대한 課稅上의 差別待遇 등을 통한 政府에 의한 資本調達 내지 半封建的土地資本의 工業資本化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論文의 前篇에서 이미 論述하였다. 둘째로 調達된 資本은 政府主管아래 社會間接資本과 基礎工業에 投資되어야 하지만, 半封建的 내지 非生産的土地資本 및 그밖의 民間資本으로서 이러한 部門으로 誘致된 民間資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優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混合經濟體制를 前提로 하는 限 그러한 措置없이 非生産的資本을 生産的產業資本으로 誘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³¹⁾

經濟計畫機構에 관해서는 여기서 詳細히 論議될 性質의 것은 아니지만, 混合經濟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社會間接資本, 基礎工業, 主要消費財工業, 銀行 및 外國貿易의 國營, 그리고 主要商品의 生産에서 消費에 이르는 一定한 過程에 있어서의 state marketing 등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政府行政體系에서 獨立된 經濟機構을 創設해야 할 것이다. 이들 部門을 政府管理下에 두지 않으면 필요한 資本을 調達할 수 없을 뿐더러 非生産的部門으로의 資本流出을 防止하지 못하며 經營과 技術에 관한 知識을 合理的으로 導入·利用할 수도 없을 것이다. 經營과 技術의 知識이 不足한 후진국에서는 19世紀에 있어서도 開發初期에는 國營 내지 政府指導를 主軸으로 하는 國家資本主義의 形態를 취했던 것이다.⁽³²⁾ 國營 내지 政府管理를 후진국 政府의 能力不足 혹은 腐敗可能性을 理由로 排擊한다는 것은 實은 前世紀的인 原始的蓄積의 基盤을 維持하려는 買辦勢力과 그것과 結付된 先進獨占資本의 利害關係를 代辯하는 態度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混合經濟體制는 前世紀的인 經濟制度의 存續을 不可能하게 하며 새로운 先進獨占資本의 侵透를 防止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現代水準에 도달한 大規模企業은 Schumpeter가 指摘했듯이 그 經營이 官僚主義化 하지 않을 수 없으며, 個人的 創意 보다도 組織과 大規模의 研究機關에 의해서만 合理的으로 運營될 수 있는 것이다.⁽³³⁾ 따라서 이러한 現代化部門이 만드시 民間에 의해서 所有되고 運營되어야 할 理由는 벌써 存在하지 않는다. 만일 政府가 腐敗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한다면, 『구테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主張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Big-Push는 社會的變革과 構造的變革의 轉換點을 이루며, 政治的으로는 守舊勢力과 新興勢力의 交替過程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31) Big-Push 理論은 1957年 國際經濟學協會의 「리오데자네이로」 圓卓會議에 提出된 P.N. Rosenstein-Rodan의 論文 “Note on the Theory of the Big-Push”에 의해 提起 되었다.

(32) 主要工業의 國營 및 政府管理는 19世紀 당시의 獨逸 및 帝政露西亞에서도 볼 수 있지만, 代表的인 것은 亦是 日本의 國家資本主義였다.

(33)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pp. 131~134

는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摩擦이 極度에 달한다. 더구나 그러한 社會改革은 특히 非生産的인 商業 및 用役部門에서의 失業增大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經濟活動의 主要部分이 非生産的인테서 生産的인 部門으로 轉換하는데 수반되는 불가피한 過程인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的開發模型에서는 이 摩擦이 더욱 尤甚하게 나타나지만,⁽³⁴⁾ 混合經濟에서는 상당히 緩和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失業人口를 都市의 工業에서 吸收해 줄 만한 與件은 갖추어지지 않는다. 工業으로의 本格的인 人口吸收은 이러한 Big-Push가 성공적으로 進行되어 基礎工業을 中心으로 餘他の 工業이 誘發될 때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過程에서 累增하는 失業者는 農業部門으로 吸收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農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大量的 失業을 吸收해 줄 만한 代表的인 產業이 후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고, 둘째로 社會間接資本과 基礎工業이 擴充되어 工業에 있어서의 誘發投資가 일어나서 都市人口가 增加 하기 시작하면 原料 및 食糧供給의 累積的인 增大를 克服할 것이기 때문에 이 過渡期에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耕地面積의 擴大와 生産性的 向上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20~30年代에 獨逸과 伊太利가 종래의 國際分業爲主의 그들의 工業을 autarky를 목표로 하는 多樣的 工業으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취한 失業對策은 좋은 先例가 될 것이다.⁽³⁵⁾ 그들은 工業의 體質改善에서 수반되는 失業增加를 農業革命 및 農業擴大計劃에 의해 農村으로 吸收했던 것이다. 農業部門의 擬裝失業을 工業으로 吸收해야 한다는 R. Nurkse 教授의 主張은 상당히 修正되어야 한다. 오히려 社會的 變革과 構造的 變革의 轉換을 이루는 開發初期에 있어서는 都市失業者를 農業計劃으로 吸收해야 할 것이고 工業部門의 本格的인 擴大가 期待되는 다음 段階에 가서 農業人口는 都市 工業으로 吸收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資源의 部門別 配分에 관한 優先順位에 관해서 論議해 보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參考文獻이 있다. 오히려 經濟開發 혹은 經濟成長에 관한 著書나 論文은 대부분 이 문제에 論議를 局限하고 있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들의 觀點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극히 技術的인 문제에 속한다. 極端的으로 말해서 이러한 知識의 缺乏이 經濟開發을 가로막고 있는 唯一한 障礙가 되어 있는 經濟라면, 벌써 그 經濟는 近代化에 필요한 社會的變革과 構造的變革이 成功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것처럼 經濟學徒들의 精力을 消耗할만한 價値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觀點에서 보면 이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先進國의 論者들은 후진국 經濟開發

(34) P. Baran, 前掲書 Chapter 7 參照.

(35) R.H. Blodget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New York, 1949. pp. 271~290.

의 大前提로서의 社會的變革과 構造的變革을 無視하였기 때문에 卓上空論에 지나지 않는 論議를 거듭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理論은 후진국의 經濟開發努力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惡影響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그대로는 適用될 수 없지만 약간만 修正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見解가 하나 있다. W.W. Rostow 教授는 그의 한 論文⁽³⁶⁾에서 開發戰略을 基準으로 産業을 分類하고 있다. 그는 그 部門에의 集中的인 投資가 速成的成長을 가져오게 하는 戰略的成長部門과 餘他的 成長部門으로 區分한다. 前者를 主要成長部門(primary growth sectors)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需要의 增加 혹은 흔히 革新(innovation)에 의해서 刺戟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主要成長部門의 速成的 擴大는 그것에 半製品과 原料를 供給할 필요가 있는 補完的成長部門(supplementary growth sectors)의 平行的成長을 요청하게 된다. 끝으로 이들 兩部門에서 생산된 所得의 增加는 所得彈力性 여하에 따라 選定되는 派生的成長部門(derived growth sectors)을 형성케 한다는 것이다.

Rostow 의 이와 같은 結論은 過去の 歷史的趨勢를 巨視的인 觀點에서 概觀할 때는 확실히 妥當性을 가질 것이다. 主要成長部門의 概念은 그 이후의 그의 有名한 著書「經濟成長의 諸段階」(*The Stages of Economic Growth*)에서 先導産業(leading industries)으로 改稱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際分業에 의하여 特화된 輸出産業을 의미한다. 事後的으로 우리가 歷史를 回顧할 때 先進資本主義諸國은 확실히 하나 이상의 輸出産業을 中心으로 經濟的 繁榮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理論은 후진국이 先進資本과 對抗해서 하나 이상의 主要工業을 發展시키는 戰略이 되지는 못한다. 先進工業은 大衆의 需要增加 혹은 革新에 의해서 그 主要成長部門을 發展시켰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후진국의 경우 需要가 많은 商品은 이미 先進獨占資本에 의해 占領되어 있다. 그리고 후진국이 필요한 것은 革新이 아니라 先進國 生産方法의 模倣인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에 있는 후진국이 필요한 것은 近代의 工業基盤을 마련하여 國內에서 생산가능한 商品을 自給할 수 있는 經濟的基盤을 構築하는 일인 것이다. 하나 이상의 輸出工業의 確立으로 그 이상 飛躍을 期待하는 것은 이러한 經濟的基盤을 갖춘 이후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에 있는 후진국의 當面의 主要成長部門은 바로 위에서 말한 基礎工業 그 자체라야 한다. 그리고 이 基礎工業과 供給面에서나 需要面에서 聯關關係를 갖는 補完的成長部門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兩部門의 成長을 背景으로 한 派生的成長部門을 생각할

(36) W.W. Rostow, "Trend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Secular Growth", in L.H. Dupriez (ed.) *Economic Progress*.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工業化過程에서 후진국은 새로운 輸出工業을 發見해야 하며, 國內資源이 豊富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輸出產業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미 分析한 바 있는 動態的 國際分業의 原理에 立脚하여야 하며, 自然抽出產業 中心의 靜態的分業에 滿足해서는 안될 것이다.

후진국에서 主要成長部門을 이루게 될 基礎工業과 새로운 輸出工業은 이른바 A.O. Hirschman의 連鎖效果(linkage effects)의 震源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각각 前方連鎖效果와 後方連鎖效果를 波及하여 補充的成長部門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는 이들 效果를 통틀어서 補充效果(complementarity effect)라고 指稱하며, 이러한 效果에 의해서 誘發되는 投資를 誘發投資(induced investment)라고 했다.⁽³⁷⁾ 그러므로 Keynes의 意味의 誘發投資와는 그 性格이 全혀 다르다. Keynes의 그것은 先進經濟에서 주로 有効需要만 人爲的으로 創造해 주면 自動的으로 일어나는 投資였다. 先進經濟는 需要만 있으면 投資가 自動적으로 일어날 經濟的 條件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후진경제에서는 오히려 生産技術面의 隘路때문에 外部經濟를 創造해 줌으로써 새로운 企業이 일어날 수 있는 條件 이틀테면 Hirschman의 補充效果를 人爲的으로 操作해 주지 않고서는 投資가 일어날 수 없다. 아마 主要成長部門과 補充的成長部門의 成長으로 말미암아 派生的成長部門에서 발생하는 投資는 바로 Keynes의 誘發投資가 될 것이다. 따라서 用語의 混沌을 避하자면 前者를 誘發投資라 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派生的投資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Hirschman의 模型에서는 計畫性이 缺如되어 있다. 말하자면 政府는 다른 企業에

(37)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58, pp. 70~71. "The Complementarity effect provides us with a new concept of *induced* investment which is more meaningful for underdeveloped economies than the conventional one, i.e., investment that is directly related to past increases in output. For this conventional concept of induced investment has validity mainly for countries with a fully built-up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tructure where increases in demand lead to increases in capacity designed to keep marginal costs from entering the area in which they would begin to rise steeply. The required adjustments may cover many industries, but are ordinarily small in any one year in relation to existing capacity. The big dyna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are expected to originate in autonomous investment.

At this point we may, however, revert to our earlier discussion of external economies: it was then shown that new projects often appropriate external economies created by preceding ventures and create external economies that may be utilized by subsequent ones. Some projects create more external economies than they appropriate and therefore their private profitability falls short of their social desirability. It is therefore to be expected that the opposite situation can also be encountered—namely, ventures that have a large "input" of external economies and a much smaller "output." The projects thus favored represent the class of easy-to-exploit investment opportunities which always abound in newly developing economies.

We can then define our concept of induced investment by the provision that the projects that fall into this category must be *net beneficiaries* of external economies.

대해서 外部經濟를 보다 많이 創造하는 project 를 推進시킴으로써 소위 Hirschman 式의 誘發投資를 일으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政府가 能動的으로 그러한 主要 project 를 推進해야 하고 主要成長部門을 중심으로 하는 自主的經濟基盤을 確立하지 않고서는 隸屬의 내지 買辦的產業構造를 止揚할 수 없다면, 政府主管아래 綜合的인 開發計畫이 樹立되고 推進되어야만 試行錯誤에서 오는 資源의 浪費를 防止하고 速成工業化가 期待될 수 있을 것이다. 計畫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일단 計畫的인 開發이 인정되는 限, 資源을 合理的으로 各產業部門에 配分하자면, 投入產出에 관한 各產業의 實物的 balance-sheets가 필요할 것인데, 이 過程에서는 投入產出分析과 線型計畫理論 그리고 各種 經濟係數가 利用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진국 그 자체의 過去의 經驗과 分析에서 얻은 知識이나 係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후진국이 着手하려고 하는 開發計畫과 同一한 發展段階에 있어서의 先進國의 過去의 經濟計畫에서 나타난 知識 및 係數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事前的인 知識이 필요한 것이지 事後的으로 얻은 知識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判斷의 參考資料로서는, 예를 들면 過去 數年間 聯關分析에서 얻은 資料도 쓸모가 있겠지만, 거기서 얻은 資料를 그대로 事前的인 投資計畫에 利用한다면 隸屬的 產業構造를 持續하고 深化하는 計畫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產業聯關分析과 線型計畫理論은 本質的으로 靜態的인 價値를 가지므로, 現代的 產業基盤 위 에서 다만 限界的인 變化밖에 期待할 수 없는 先進經濟에서라면 一般的인 妥當性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產業의 構造的인 變革을 요청하는 후진경제에 있어서는 그 자체에 관한 過去의 經驗이나 知識이 利用될 領域은 극히 限定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印度의 經驗은 이 點을 雄辯으로 말해주고 있다.⁽³⁸⁾

V. 結 論

후진국의 經濟開發計畫은 한편에 있어 半封建的 내지 前資本主義的인 原始蓄積과 그 非

(38) P.C. Mahalanobis, "Study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alks on Planning*, Asia Publishing House, Bombay, 1961, pp. 140~41. 그 일부를 引用하면,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analysis of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material expenditures and output(input and output analysis) or linear programming has a basically static value. In all probability they do not offer great help for studying the problem of rapid industrialization, when the structural inter-relations themselves among the material expenditures and output come to alter in a radical fashion. However, the study of the ratios among the expenditures of production and output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in such a country as the USSR may throw light on th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生産的投資의 温床이며, 나아가서 買辦資本이 寄生하기 마련인 낡은 經濟制度의 改善을 뜻하는 社會變革(social change)과,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오랜 植民統治下에서 培養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새로운 形態로 先進獨占資本의 原始蓄積의 狩獵場이 形成되어 가고 있는 隸屬的產業構造의 自主的·獨立的產業構造에로의 構造的變革(structural change)을 政策目標로 삼아야 한다. 前者는 產業資本의 動員計劃과 관계되며, 後者는 資本의 產業別 配分, 이를테면 投資計劃과 관계된다. 이 論文에서는 混合經濟體制를 前提로하여 前篇에서 社會變革에 수반되는 資本動員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 後篇에서는 構造的變革에 수반되는 投資計劃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 두 문제는 서로가 密接한 關係를 가지며, 別個로 다룰 수 있는 性格의 것이 못된다.

이 後篇에서는 構造的變革에 수반되는 諸問題와 그것을 促進시킬 수 있는 投資戰略의 問題를 다루었다.

후진국의 產業構造는 한마디로 말해서 隸屬的產業構造를 그 特徵으로 한다. 構造的 隸屬性은 특히 19世紀 後半期 이후의 帝國主義段階에서 先進獨占資本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강요되었고, 1930年代 및 戰後에 이르러 帝國主義列強 간에 顯著하게 나타난 世界貿易의 再編이 先進經濟 상호간에서는 새로운 經濟的秩序를 摸索하려는 傾向이 있지만, 對後進經濟關係에서는 종전의 19世紀的 隸屬關係를 持續하려는 現代的帝國主義에 의하여 새로운 形態로 變貌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本質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후진국의 自然抽出產業은 先進經濟의 生産財產業 혹은 重工業과 產業聯關을 가지며, 國內의 食糧自給을 特徵으로 하는 自給農爲主의 生計農業을 제외한다면 現代化되고 特화된 農場農業(estate agriculture)은 先進經濟의 消費財工業 혹은 輕工業과 產業聯關을 맺고 있다. 道具와 간단한 機具의 生産 및 그밖의 手工業을 제외한다면, 都市에는 生産的產業이 없고 다만 原始生産品의 輸出을 條件으로 하는 先進國 消費財의 輸入 및 그 販賣過程에 寄生하는 買辦商人과, 高利貸業者 및 地主등의 有閑階級 그리고 行政官僚들로 形成되는 買辦都市인 동시에 行政都市의 性格이 후진국 都市를 特徵지워준다. 따라서 經濟的으로는 工業과 農業 및 鑛業간에 아무런 產業聯關을 가지지 못하는 隸屬的產業構造를 형성하며, 社會的으로는 都市와 農村이 全히 그 體質을 달리하는 二重社會 내지 複合社會를 형성한다.

이러한 隸屬的產業構造와는 달리 하나의 自己完了的인 現代化된 自主的產業構造를 갖는 先進經濟에 있어서는 政策原理는, 現在의 國民厚生의 極大를 그 傳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厚生極大의 客觀的條件(生産의 極大)과 主觀的條件(消費의 極大)은, 產業資本主

義가 獨占資本主義로 變質함에 따라, 이들 條件을 規制하는 完全競爭이 沮止된다. 이리하여 資本主義 그 자체의 內在的 矛盾이 顯在化한다. 여기서 새로운 解決點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主觀的條件에 부수되는 所得再分配의 문제는 단순한 派生的問題에 불과했지만 完全競爭의 排除를 수반하는 企業의 寡占은 厚生極大의 客觀的條件의 排斥, 이를테면, 人的·物的 資源의 遊休와 浪費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獨占資本主義의 矛盾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往年의 完全競爭을 恢復시킴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는 努力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制度를 修正함으로써 무엇보다도 緊急한 課題인 人的資源의 遊休, 즉 失業문제를 해결하려는 努力이 있었다. 前者는 단순히 資本主義의 青春期에 대한 鄉愁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不毛의 經濟學이란 奈落으로 떨어지고 만 新厚生經濟學派의 헛된 努力과, 獨占資本主義體制 그 자체를 否定함으로써 새로운 完全競爭의 經濟體制를 實現하려는 自由制 社會主義論者들의 努力이었다. 後者는 植民地의 爭奪을 통한 外延的成長이란 지금까지의 傳統을 저버리고 國內에 있어서의 多樣生産, 거의 같은 의미지만 소위 有効需要의 創造로서 內包的成長에 알맞는 經濟體制的 編成 내지 修正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Fascism의 國家社會主義와 Beveridge의 修正資本主義의 擡頭가 그것이다. 「가지지 못한 나라」(have-not nations)는 多樣生産에 의한 完全雇傭과 autarky 를, 「가지는 나라」(have nation)는 有効需要創造에 의한 完全雇傭의 達成을 政策의 目標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體制는 本質的으로 같은 系譜에 屬한다. 後期 Keynes派 亦是 문제를 動態的으로 파악하였을 뿐, 修正資本主義의 體質을 벗어나지 못하며, 또한 문제를 動態的으로 보는 限, Marx가 提示한 資本主義의 內在的 矛盾, 즉 生産力의 擴大와 購買力增加간의 乖離라는 投資의 二重의 性格이 胚胎하는 矛盾에 대한 해결책이 그들의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Harrod는 그 窮極의 解決策은 無利子社會의 實現으로 보았지만, 自由制 社會主義, 國家社會主義 및 修正資本主義 三者중 어느 것이 眞正한 解決策이었든가는 後世의 史家들의 批判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後進社會에서는 첫째로 商業資本 高利貸資本 및 半封建的土地制度라는 前資本主義的 낡은 經濟制度와, 그밖에 擴大再生産을 가로막는 前世紀的社會制度 및 社會的慣習등이 複合作用으로 單純再生産을 免치 못하게 하는 前世紀的諸制度의 改善을 內容으로 하는 社會變革이 필요하다. 둘째로 後進社會에서는 그러한 經濟 및 社會制度가 先進獨占資本과 結合함으로써 隸屬的產業構造를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後進國은 先進資本을 위한 原始蓄積의 狩獵場이 된다. 그러므로 隸屬的產業構造의 自主的이며 獨立的인 產業構造로의 構造的變革이 요청된다. 이리하여 後進經濟에서는 社會變革과 構造的變革을 동시

에 充足시켜주는 政策的基盤으로서 후진국 特有的 混合經濟體制 乃至 社會主義體制的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 「후진국 特有的」라는 말은 資本主義的인진 社會主義的인진 間に 先進經濟를 위한 買辦性내지 隸屬性이 排除되어야 하며, 先進「이데올로기」의 使徒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意味이다. 이러한 體制的 確立없이, 組織的으로 浸透된 買辦的 經濟勢力과 先進「이데올로기」에 의하여 麻痺된 후진국의 精神的狀況을 改善할 수는 없다. 이 점이 19世紀 후진국의 事情과 判異한 對照를 이룬다.

그런데 이 後篇의 主題인 後進國에 있어서의 資本의 產業別 配分은, 隸屬的產業構造의 構造的變革을 大前提로 하는 만큼, 「國民生產力의 極大」가 政策의 原理가 되어야 한다. 先進經濟의 「厚生極大」와 後進經濟의 「生產力極大」라는 政策原理의 差異는 經濟發展段階의 格差에서 오는 당연한 歸結이기도 하다. 先進經濟의 政策이 現在의 國民厚生, 즉 現在의 享樂을 目標로 한다면, 後進經濟의 政策原理는 將來의 國民厚生, 따라서 現在에 있는 耐乏을 目標로 해야 한다. 前者는 購買力의 增加, 즉 貨幣國民所得의 增大(經濟成長), 를 꾀하지만 後者는 生產力의 增大(經濟發展), 즉 生產財生產을 中心으로하는 工業化를 꾀해야 한다. 前者는 이미 現代化된 產業基盤을 土臺로 한 限界的成長을 특징으로 하지만, 後者는 構造的變革, 이를테면, 生產財產業과 消費財產業, 農業과 工業, 大工業과 中 小工業간의 自主的인 產業聯關關係의 確立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構造的變革過程에서 새로운 動態的國際分業原理에 입각한 世界貿易에의 參與를 꾀해야 한다. 國民生產力基準은 곧 후진국의 工業化理論이기도 하지만, 19世紀 후진국은 대체로 같은 文化的傳統과 開發初期의 비교적 높은 國民所得水準등으로 말미암아 保護主義라는 餘裕있는 政策原理로 서도 工業化가 可能했지만, 오늘날의 후진국은 近代化를 가로막는 前資本主義의 낮은 制度, 買辦勢力과 結付된 組織的外勢의 浸透, 低所得으로 인한 低貯蓄能力 및 爆發的인 人口增加率등으로 말미암아 強力한 中央集權的統制와 經濟計畫이 필요하며, 그것은 速成工業化를 위한 必要惡이기도 하다.

國民生產力 極大라는 政策的指針이 선다 하더라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構造的變革은 먼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과 基礎工業의 設立이 거의 同時에 推進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開發初期에 있어서의 Big-Push 過程에 수반되는 困難하고도 忍耐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草創期에 있어서의 이 Big-Push는 후진국의 構造的變革의 轉機를 이루는 試鍊인 만큼 아무리 困難하더라도 한번은 후진국이 克服해야 할 고비인 것이다. 이 Big-Push 過程은 한편에 있어 莫大한 內資와 外資 그리고 先進技術의 導入을 要하는 만큼, 첫째로 社會貯蓄率을 大幅 높여야 하며, 둘째로는 輸出의 伸

長 및 國際經濟協調를 필요로 한다. 社會貯蓄率을 大幅 높이기 위해서는 資源의 浪費와 非生産的投資를 수반하는 前資本主義的經濟制度의 近代化, 즉 混合經濟體制 혹은 社會主義體制的 確立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制度의 改善없이는 工業化에 必要할 만큼 貯蓄率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社會變革은 土地改革과 外國貿易 및 主要 國內商·用役業의 state marketing에 의하여 原始蓄積의 대부분을 生産的投資로 轉換할 수 있는 經濟制度의 改善이다. Rostow 教授는 take-off의 前提條件으로서 生産的投資率을 國民所得의 10% 이상으로 提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⁶⁾ 그리고 Hirschman은 均衡的成長——Big-Push도 그에 의하면 하나의 均衡成長模型이다——이 가능하다면 그 經濟는 벌써 後進국이 아니고 先進國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³⁷⁾ 그러나 Rostow는 과거의 經濟的史實에 立脚하여 事後的으로 take-off의 前提條件을 말했을 뿐 生産的投資率을 國民所得의 10% 이상으로 提高할 수 있는 政策手段에 대해서는 극히 曖昧하다. 아마 自然的趨勢에 맡기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Hirschman은 처음부터 構造的變革을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外部經濟 創造에 의한 誘發投資의 觸發이라는 技術論으로 墮落하며 문제의 本質을 迴避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國民所得의 15~20% 程度의 生産的投資率이 필요하지만, Rostow에 따라 10% 이상의 社會貯蓄率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經濟制度의 近代化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Nurkse 教授의 所論을 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貧困의 惡循環도 一理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人當所得이 100 弗 以下인 오늘날의 後進國에서 社會貯蓄率을 높이자면 制度의 人爲的인 改善이 不得已한 일이다. 따라서 後進國의 近代化를 가로막는 要因은 貧困의 惡循環이 아니라, 制度改善을 拒否하는 政策의 貧困인 것이다.

社會貯蓄率의 大幅的提高라는 內生的條件을 充足하였다 하더라도, 內資와 結合될 外資 및 近代技術의 導入이라는 後進國 자체로서는 더욱 調整하기 어려운 外生的條件을 充足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政治的「이데올로기」를 떠난 眞正한 國際經濟協調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資本主義陣營에 있어서의 海外投資는, 民間資本의 경우 本國의 重工業과 輕工業을 위한 原料調達이라는 後進國의 買辦的產業構造를 前提로 하고서만 採算이 맞으며, 따라서 自然抽出產業 및 고무 등 特殊한 栽培業만을 投資對象으로 하게 된다. 政府資本의 경우를 보면, 國內市場에서 處分困難한 剩餘生産物 아니면 後進國 政府를 對象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에의 投資에 限定하기가 일쑤이다. 그러면서도 더욱

(36)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1960, p. 39.

(37) 이 문제에 대한 그의 見解에 대해서는, 그의 著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1958, Chapter 3을 參照하라.

困難한 일은 政治的「이데올로기」의 強要가 附隨條件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 中立陣營의 後進국이 比較的 有利한 立場에 있으나, 이른바 「보오더 라인」에 接해 있는 後進국은 冷戰의 性質上 더욱 不利한 立場에 處한다. 基礎工業의 建設을 위한 外資導入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基礎工業 中에서도 어느 것에 優先順位를 둘 것인가는 그 이후의 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外換問題와 工業化過程 그자체의 短縮 可能性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印度의 경우, 鋼鐵工場을 하나 더 新設할 것이냐, 아니면 綜合機械工場을 設立할 것이냐에 관한 第2次 5個年計畫 立案 당시의 決意는 실질적으로 第2次 5個年計畫의 全運命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綜合機械工場 대신에 鋼鐵工場을 擇했기 때문에, 計畫遂行에 필요한 많은 機械를 輸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드디어 計畫末期엔 印度 자체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外換危機에 逢着하면서도 所期の 計畫成果는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이 때 綜合機械工場을 擇했다라면, 外換의 危機 없이 所期の 成果는 물론 그 이후의 計畫을 더욱 圓滿히 遂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Mahalanobis 教授는 述懷하고 있다.⁽³⁸⁾

마지막으로 資本의 產業別 配分을 위한 戰略에 관한 技術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技術이지, 後進국 經濟發展의 運命을 左右하는 本質的인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發展 및 經濟成長에 관한 先進文獻의 대부분은 이러한 枝葉의 문제에 局限되어 있다. 그들이 문제의 本質을 迴避하거나, 「後進국 經濟開發에서는 強力하고 有能하며 腐敗하지 않는 政府」가 필요하다는 따위의 말로 煙幕을 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先進國의 國家利益을 代辯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立場을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³⁹⁾ 先進國의 學者로서 後進국의 經濟의 利害關係를 代辯해 준 例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本質을 파악만 하면, 그들의 戰略과 技術은 매우 有利하다. 그러나 그것을 後進국에 適用하자면, 修正되거나, 새로운 操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기서 開發戰略으로서 Rostow 教授의 成長部門說과 Hirschman의 連鎖効果를 들 수 있고 計畫技術로서는 產業關聯分析을 들 수 있다. Rostow 教授는 開發戰略의 觀點에서 產業을 主要成長部門과 補完의 成長部門, 그리고 이들 두 部門의 發展을 前提條件으로 하는 派生

(38) P.C. Mahalanobis, Study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alks on Planning*, Bombay, 1961.

(39) 題目이 巨擘하면서도 健全한 後進국 政府論 이외엔 이렇다 할 내용이 없는 代表的인 著述로서 E. Mason, *Economic Planning in Underdeveloped Areas*, 1958 (姜命圭譯, 後進地域의 經濟計畫)을 들 수 있다.

的成長部門으로 나눈다. 그 후 그의著 *The Stage of Economic Growth*에서는 主要成長部門의 概念이 先導產業이란 概念으로 轉換되어, 후진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先導產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先導產業은 歷史的 事實에서 抽象한 事後의 概念이며, 19世紀의 靜態的國際分業에서 特화된 輸出產業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문제의 후진국이 어떤 것을 主要產業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는 選擇의 基準으로서의 事前의 概念이나 動態的 概念이 못된다. 隸屬的 產業構造의 自主的·獨立的 產業構造에로의 構造的 變革이 필요할 뿐 아니라, 東西貿易 中心의 오늘날의 世界貿易 構造에서는 종래의 自然抽出 產業 아닌 새로운 輸出工業을 育成하지 않을 수 없는 動態的 國際分業의 原理 및 比較成長率의 原理에 입각한 恒久的 工業保護論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후진국의 主要成長部門은, 바로 基礎工業이어야 한다. 이리하여 일단 近代의 工業基盤을 갖추게 되면 새로운 動態的 國際分業에서 特화된 이른바 Rostow의 先導產業으로서의 輸出工業이 開拓될 것이다. 일단 主要成長部門으로서 基礎工業이 確立되면, Hirschman의 前方連鎖效果와 後方連鎖效果, 이를테면 그의 補充效果에 의해서, 이들 基礎工業에 原料나 半製品을 供給하거나, 反對로 그 製品이나 半製品을 需要함으로써 이들 基礎工業과 產業聯關關係를 갖는 補充的 產業에서 後進國의 誘發投資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外部經濟의 創造를 先行條件으로 하여 그 補充效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投資를 誘發投資로 생각하는 Hirschman의 立場은 적어도 후진국에 관한 限 妥當한 概念이며, 有效需要의 創造를 條件으로 하는 Keynes的 誘發投資의 概念은 후진국의 경우 대체로 妥當性을 갖지 못한다. 이들 두 成長部門에 있어서의 所得增大는 需要의 所得彈力性 여하에 따라 主로 消費財產業이 中心이 되는 派生的 成長部門에서 派生的 投資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경우의 派生的 投資는 Keynes的 誘發投資와 그 內容을 같이 한다.

이러한 開發戰略은 후진국의 경우, 社會主義體制이든 混合經濟體制이든 다 같이 適用될 것이다. 社會主義體制에서는 보다 많은 經濟領域이 보다 集中的으로 政府統制를 받을 것이지만, 混合經濟體制에서는 첫째로 社會變革을 위해 資本의 生産的 調達을 위해 大規模 消費財工業, 銀行, 主要品目的 輸出入과 國內商業(都賣) 및 用役業등의 政府統制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構造的 變革을 위해서는 動力 輸送 등 社會間接資本 및 重要成長部門의 直接的인 政府統制와 補充的 成長部門에 대한 間接的인 政府統制만으로 足할 것이다. 따라서 混合經濟에서는 質의 으로는 보다 많은 部門의 經濟活動이 民間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만일 制度의 近代化없이 自由放任하거나, 낡은 經濟勢力을 代辯하는 政治勢力에 의해 그릇된 政府統制가 가해지는 限, 隸屬的 產業構造를 深化할뿐, 眞正한 의미에 있어서의 후

진국의 經濟發展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經濟計畫技術로서의 產業聯關分析이나 各種 經濟係數는 先進國의 初期의 開發計畫에서 얻은 經驗을 토대로 한 그것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事前的이고 動態的인 分析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買辦的產業構造를 反映하는 후진국 그자체의 產業聯關分析이 構造的變革을 꾀하는 후진국의 投資計畫에 아무런 指針을 提供할 수 없으며, 낡은 生産方法이 대부분이고 都大體 近代的의 生産財產業을 갖지 못하는 후진국의 各種 經濟係數가 國民 生産力의 極大를 꾀하는 工業化計畫에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후진국의 經濟開發 努力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진국 자체의 國家利益을 尊重하는 일이다. 政治的「이데올로기」는 이 國家利益을 尊重하는 「이데올로기」로 修正되고 再 解釋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훌륭한 敎訓은 重商主義에 대한 重農主義, 自由主義에 대한 保護主義, 獨占資本主義(帝國主義)에 대한 社會主義 내지 孫文의 三民主義라는 후진국 그 자체의 國家利益을 代辯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후진국의 近代化는 반드시 先進「이데올로기」에 對抗하는 後進「이데올로기」를 그들의 歷史的의 與件에 알맞게끔 創造하여 왔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점은 變함이 없다. 후진국의 經濟開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自己의 眞正한 모습을 發見하는 일일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Summary>

The Mobilization and Allocation of Domestic Capital (Part II)

*Hee-Bum Park**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should include two aspects as its target of development policy; on the one hand the social change, and on the other, the structural change. The social change means reforming of traditional economic institutions, in which precapitalistic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unproductive investment of capital and so-called comprador capital can easily be prevailed. The structural change means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into independent or self-sustained structure from dependent or subordinate one, which have grown up under long-continued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become nowadays the ground for a new form of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of the advanced monopolistic capitalism. The social change is related to the mobilization-programme of industrial capital, and the structural change to the allocation of capital among industries, i.e., the investment-programme of capital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we discussed the problem of capital mobilization accompanied with the "social change," and here in the second part, the problem of capital investment accompanied with the "structural change." Both problems, however,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and can not be inquired into separately. In other words, here we discuss the strategies of capital investment inspiring the structural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can be summed up in a word of "subordination" to advanced economy. Generally

*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aking, the subordin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was one-sidedly compelled by advanced monopolistic capitalists at the stage of imperi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oday it has changed into a new form by the modern expansionism that has tried to maintain the 19th century's subordinative relations. But there are substantially few differences between the 19th century's subordinative relations and those of today. In the underdeveloped economy, the mining industry is not linked up with its own country's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with the producer's goods or heavy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modernized estate agriculture except the traditional small farming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s linked up not with its own country's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with the consumer's goods or light industries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citie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re are few productive enterprises except handicraft and production of simple tools or instruments; but there are only the usuries, the landlords, the bureaucrats and the parasitic merchants who export their own country's primitive products and import the consumer's goods of advanced countries. Thu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those subordinative industrial structure have few economic linkages among mining,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and socially, they constitute the plural or dualistic society which has few interaction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underdeveloped economy with those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strictly distinguished from that of advanced economy. First, the precapitalistic traditional economic institutions such as merchant capital, usuries and semi-feudal land system should be reformed; and also all the traditional social institutions that hinder the enlarged-reproduction and force the simple reproduction should be also reformed. This means the overall social change. Secondly, the structural change of industry should proceed toward the independent self-sustained structure, getting out of the situation of ground for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should establish their own mixed economy

that could reform the social institutions as well as change the industrial structure simultaneously. The word “their own” implies that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ether they are capitalist or socialist, have to exclude the subordinative relations and cast off the role of the apostle for the advanced countries on the ideological aspects. Without the construction of such independent system,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economic pressure from advanced countries and to achieve the reasonable development of economy for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is a very different point between the situation of the present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at of 19th century’s.

Since the allocation of capital among industrie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we take as the subject in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aims at the reformation of subordinative structure of industry,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productive power” should be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polic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maximization of welfare” in advanced countries and that of the “maximization of productive powe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s a matter of course of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 purpose of economic policy in advanced economy is on the present welfare, i.e., the present pleasure, of the people; the principle of economic polic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s on the future welfare of the nation, i.e., the present austerity of the people. The former intends to increase the purchasing power i.e., monetary national income (economic growth), but the latter should intend to increase the productive power (economic development), i.e., the industrialization. While the feature of the former is the *marginal* growth based upon the modernized industrial foundations, the latter should achieve *overall*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While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19th century, which had similar traditions of the culture and relatively high level of national income, could achieve the industrialization with a loose policy of so-called protectionism, those of the present day, which have the precapitalistic socio-economic institutions, the

pressure from advanced countries, the lower level of income and savings and rapid growth of population, need inevitably the strict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chieving structural change under the principle of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productive power,” there must be both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asic industries. This is the process of “Big Push” at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Big Push” process, it is necessary to supply enormous domestic capital and to import foreign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first, the rate of social savings should be raised; secondly, the export should be increased, and thirdly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urged. For the increase of social savings, the precapitalistic economic institutions which may induce the waste of productive resources should be modernized. Therefore, we need some institutional reformations, such as land reform, the reform of marketing system specially relevant to foreign and domestic trade and reform of capital accumulation mechanism which can mobilize the unemployed resources into productive investment. Professor Rostow argued that the rate of productive investment should be increased more than 10 % of national income for the “pre-conditions of take-off.” Professor Rostow’s premise of “take-off,” however, based only on *ex post facto* economic realities; moreover, he did not discuss about the measures which could raise the productive investment more than 10 % of national income. Professor Hirschman, from the beginning of his discussion, did not pay his attention to the structural change. He evaded the core of the problem by taking the technical problems which might bring about the induced investment by the creation of external economies.

In my opinion, the reformation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especially the mechanism of capital accumulation) might be inevitable for raising the rate of social savings in present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less than

100 dollars of per capita income. The factors impeding the modernization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not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as Professor Nurkse pointed out, but the “vicious circle of policy” rejecting the institutional reform.

Besides the raise of social savings, the 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 and modern technology must be met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programme. But this is a difficult task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effectively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any political strings. Under the relations of capitalist economy,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generally speaking,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particular sectors such as mining, oil, rubber plantation, etc., which can supply raw materials for their own heavy and light industries. As the resu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has been distorted. As for the foreign government capital, it has been invested mainly to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usually this foreign capital has political strings. However, the foreign capital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basic industrie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f well-manag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 the priority of investment, i.e., on which basic industry to place the priority, exerts a great influence on demand and supply of foreign exchange and on shortening of industrialization period needed. For instance, if the investment priority had been placed on a integrated heavy machine building plant rather than a steel plant in the Indian Second Five Year Plan, said Professor Mahalanobis, both the goal of the Plan itself and the following investment projects could have been accomplished without any crisis of foreign exchange.

Finally, here remains the technical problems on strategies for allocation of capital among industries. But this is only the technique of minor details; it can never be the substantial problem influencing the fat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vertheless, the most of the works of western scholars on economic development are limited to these technical problems, and

as the result, they, are evading the core of the problems. The reason, I suppose, is that they take the views which are speaking for the national interests of advanced countries.

Nevertheless their strategies and techniques are very useful, if we grasp the essence of the problems correctly. When we apply them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of course, we need much modification and new coordination of them. There are Professor Rostow's theory of primary growth sector and Professor Hirschman's theory of linkage effects for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put-output analysis for the planning technique which we can apply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usefully. But Professor Rostow's primary growth-sector is an *ex post facto* notion, not a dynamic one which can present a guidance to judge which the most important industry is or on which industry to place the priority. It is the basic industries that must undoubtedly be the primary growth sector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if the basic industries are arranged as the new export industries, which are specialized in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Professor Rostow's so-called primary growth sector will be established. Once the basic industries, as the primary growth sector, are established, we can expect the induced investment in the supplementary growth sector related to those basic industries by Professor Hirschman's complementarity effects, i.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and Keynesian induced investment in the derived growth sector. Input-output analysis, as an economic planning technique, must become the *ex ante* analysis or the dynamic analysis based on experience which is acquired from the earlier economic development of advanced countries. Because, input-output table of an underdeveloped country itself, which is reflecting subordinative and distorted industrial structure, cannot present any guidance to the investment programm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ttempting the structural changes of industr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effor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s to resp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hemselves.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original “ideology” which can speak for their interests against imported foreign ideologies. List’s protectionism against Ricardo’s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Sun Yat-sen’s Three-fold National Principle against imperialism are some of good examples. To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developed countries must find out their real images and interests.